

# 포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 “平和의 딸”

## 국내외 작가 17명 참여 야외조각 작품 제작

2005 포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 개막식이 지난 23일 오후4시 산정호수 관광지내 행사장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은 경과보고, 초대작가 참가증서 전달, 대화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은 포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도시로 꾸미어 나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각 축제로 세계현대조각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작품들로 산정호수 조각공원을 조성해 이곳을 찾는 포천시민과 외부 관광객에게 수려한 자연과 우수한 조형예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산정호수와 잘 어우러질 17점의 세계적 작품을 기대하며 세계적인 조각공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행사를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연제동 운영위원장인 “난항 풍기듯 깊숙이 쌓여있는 아주 조그마한 기쁨의 소리를 듣고 들려주는 틈새에서 삶의 소중함이 시작 될 것”이라며 “맑고 맑은 산정호수 자락에 평화의 딸이라는 주제로 열일곱 작가의 혼이 담긴 작품들이 평화의



2005 포천 국제조각심포지엄 개막식이 지난 23일 산정호수 관광지내 행사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윤국 포천시장(가운데)이 초대작가들에게 참가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씨앗이 되어 세계인의 사랑 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05 포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에 초대된 작가는 다음과 같다. (국내작가) ▶강진모 ▶김중호

▶박상숙 ▶박상호 ▶신현중 ▶이동용 ▶이일호 ▶이종빈 ▶임승호 ▶정현 ▶조성목 ▶최평근(국외작가) ▶게이지우에마스(일본) ▶수이 지안 귀(중국) ▶테드 알(미국) ▶그레그 존스(호주) ▶양게 멜린(독일)

이번 국제조각심포지엄 주요일정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작품제작 및 설치, 지난 27일 오후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학술 세미나 개최, 오는 8월21일 폐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4

# 정조시대 청론사류의 대표적 인물

이서구(李書九)  
1757(영조30)~1825(순조25)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자는 낙서(洛書), 호는 책재(齋) 강산(江山) 본관은 전주. 선조대왕의 12남 인흥군의 6대손이고 증 영의정 원의 아들이다. 연암 박지원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 사관을 지내고 사헌부 지평에 이르렀을 때 젊은 나이에 인격이 고매하고 학식이 높아 중명을 받아 이를 시기하는 무리가 많고 관직을 버리고 집(양문)으로 돌아왔다.

정조가 선생에 대한 일을 탐문하고 그 인품과 학식이 아까워 대신들과 의논하여 불렀으나 나가지 않다가 왕의 간곡한 분부가 재차있어 조정에 나가니 초계문신(抄啓文臣)-문학에 뛰어난 사람에게 내리는 직책)에 임명되어 이서서 홍문관 교리, 다음해 경상도 암행어사, 이어서 승정원 승지가 되자 모함을 받아 유배, 풀려나와 다시 승지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대사성, 대사헌 등 여러 직책을 내렸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호남지방이 연이은 흉년으로 혼란에 빠지자 이를 해결할 유일인 인물로 지목되어 호남감사로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으니 조정에선 선생을 호남지방으로 유배를 보낸후 호남감사 직책을 내리니 그는 호남땅에 유배길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실상을 보고 여필수 없이 호남감사로 취임하여 3년의 임기중 모든 어려운 현안을 훌륭하게 해결하고 임기가 끝나자 왕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후 바로 수사 부름으로 서울에 나가 병조참판,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왕명으로 장릉지를 교정하고 존주취편을 찬수하였다.

그는 청론과 북학의 중심인물로서 확고한 태도로 세도정권에

맞서 사림정치의 원칙을 고수하였기에 벼슬길은 순탄치 않아 수차례 걸쳐 유배의 수난을 겪었다. 정조는 조선조 500년동안 세종과 더불어 송문의 군주로 알려졌으나 정조는 공론을 배격하고 실사구시하는 실학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선생과 의사가 상통하였던 것이다.

정조가 학덕이 높은 실학자인 정약용과 선생을 가장 아끼고 신임하였기에 주위에서 시기하는 무리가 많아 정약용이나 선생의 관직은 형극의 길이었다.

순조가 즉위하자 양문은 은거하고 있던 선생을 형조판서에 임명하고 정조실록 편찬에 참여토록하고 이어서 이조판서, 함성판윤, 평안관찰사 등을 역임, 대호군을 거쳐 우의정에 올라 선생을 베풀어 중명을 받았다.

사직소를 올리고 고향(양문)에 돌아오니 조정에선 관중추부사 좌의정에 임명하고 수차 불렀으나 기어이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는 한편 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지내다가 1825년(선조25) 72세로 서거하였다.

당대의 대학자요 실학자인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과 더불어 한시4대가로 뽑히고 아울러 청론 북학의 중심인물로서 정조, 순조는 물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터였다.

그는 양문대신으로 널리 알려

진 포천이 낳은 위인이었다. 양문대신에게는 일화도 많이 전한다. 선생은 앞날 다퉈움을 알을 미리 알아 맞히는 때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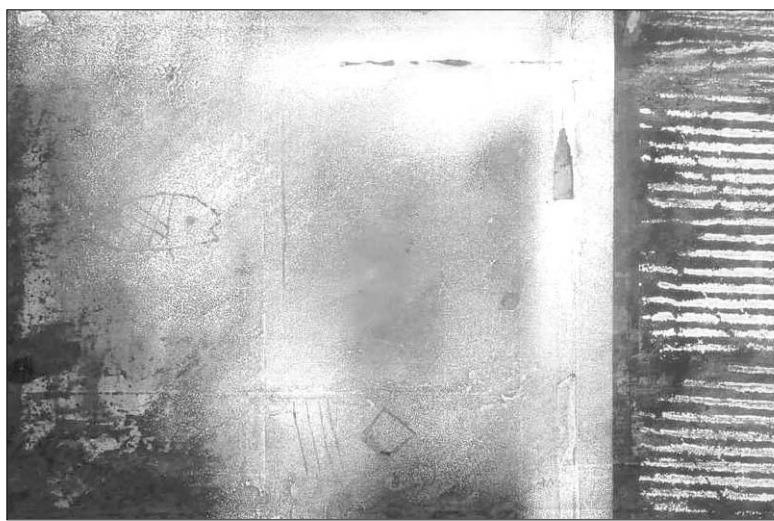
전라감사로 임명되어 직책을 바로잡고 선정을 베풀고 임기가 끝나 서울로 돌아올 무렵에 호적을 가져다 여러 서리에 나누어 주면서 다시 베풀어 오도록 하여 다른 참고로 별도로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선생이 떠난 후 어느날 갑자기 호적참고에 불이 나서 다른 장부는 모두 타버렸으나 새로 베풀어 오도록 보관해둔 호적은 아무 탈이 없었다. 자기가 떠난 후 이러한 일이 저절로 잘 것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일로는 그가 전라감사로 있을 때 어느날 북두칠성에서 별뿔이 나주지방에 광채를 내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감영에서 부리는 하인을 불러 단단히 부렸다. 네가 지금 담당 나주 이 아무개 집에 가면 그집 머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사내아이거든 반드시 죽여 버리고 계집아이거든 죽이지 말고 돌아오너라 하고 일렀다. 얼마 후 하인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 고하였다. 정말 아이를 낳았는데 계집아이를 낳았더라.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사내아가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국가의 국난을 일으킬 존재겠지만 계집아인데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관세가의 첩실이 되어서 그 세력이 한 사대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 계집아이가 과연 세도재상 김좌근의 첩이 되어 그를 통하여 아니되는 일이 없다고 하여 나주 합포를 불러오던 나합이었다.

이밖에도 그의 청백과 앞날을 예견하던 일화가 많이 전해지는데 이는 그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예언과 여망이 투영되어 나온 일화들이다. 선생의 시호는 문간공이다.

## 민족의 정체성 모티브 작품 展示

홍승표 제4회 개인전 8월1일~15일 취옹예술관



포천출신 작가 홍승표 개인전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취옹예술관에서 오는 8월1일부터 보름간 초대전으로 개최된다.

포천출신 작가 홍승표 개인전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취옹예술관에서 오는 8월1일부터 보름간 초대전으로 개최된다.

홍 작가는 오래된 고서와 탁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화면을 설정하고 흙과 혼합재료를 이용한 혼합기법으로 상형문자 등의 형상화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시간의 흔적”이란 주제로 마련되는 홍승표 4회 개인전은 한국 구조의 취옹예술관과 황토빛 톤의 작품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편 전시기간중인 오는 8월6일(토)에는 퓨전 타악 퍼포먼스 그룹-코티의 공연과 작가와의 대화 등 흥겨운 자리가 마련된다. 자세한 사항은 017-348-4939(홍승표), 031-585-8649(취옹예술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승표 작가는 최근 결성된 수목원 작가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과 국립수목원 전시실에서 도 개인전을 가진 바 있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경기북부작가회 회원, 감사전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향토사료총람 하권 오는 12월 초 發刊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간담회에서 의결

포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19일 동교동 소재 푸른언덕에서 이민구 문화원장을 비롯 이석구 소장,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만구 원장은 포천지역은 다른 데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있기에 이를 적극 개발하여 뿌리깊은 전통으로 이어 나가는 일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요 사명이라고 말하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우리고장의 문헌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천향토사료총람’ 하권 발간계획에 따라 지

난해 발간한 상권에 이어 조선시대 광해부터 고·순종 실록 발해 및 정리, 수록해 올래 12월초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지명유래집 발간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포천의 역사와 선조들의 생활, 애환과 풍속이 깃들여진 삶의 흔적, 변천되어 온 언어의 변화, 지형적 표현, 성현들의 발자취 등 사실에 근거한 사료집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으고 우선 금년도에 자료수집 및 편집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조사계획을 수립, 집중조사하고 중요한 위치사건과 지도삽입 등 소중한 자료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19일 동교동 소재 푸른언덕에서 이민구 문화원장을 비롯 이석구 소장,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 봉선사 연꽃축제가 成了

여름밤 세속계도를 읊미하는 산사의 축제인 봉선사 연꽃축제가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더해 주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신도회가 주최한 ‘제3회 연꽃축제’ 행사는 지난 23일 봉선사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날행사는 봉선사 철암 주지스님을 비롯해, 김순경 신도회장과

신도 및 관계자, 일반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부터 연꽃의 신비로움을 손길에 담은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 사진전’, 다정 김규현 화백의 ‘황금목어전 및 출판기념회’, 봉선사 다도회와 함께 연꽃차와 연일차의 깊은 향을 음미할 수 있는 ‘들차와, 붓다라기’ 다스님과 함께 하는 남방 수행 경

기 대회인 ‘검기 명상체험’, 광동고등학교 풍물단이 펼치는 ‘신명 깨우기’와 참여자가 직접 연등과 깃발을 만드는 ‘연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외 오후 5시에는 연꽃축제 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봉선사 승목스님의 사회로 불교전통 문화 의식과 음악·무용이 어우러진 ‘영상대제시연’이 진행됐다.

또 2부 행사에서는 방송인 김병조의 사회로 초대가수와 관련단체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초대 漢詩

## 吟盛夏節(다시 복더위 철을 읊는다)

雨霖雲開萬里平(우계운개만리평)

마비 개이고 구름이 열리니 만리 넓은 들이 평탄하고

氣清日朗十分晴(기청일랑십분청)

기상이 맑고 날이 밝으니 날씨가 청명하구나

門前碧柳鶯鳴韻(문전벽류영맹운)

문 앞에 버드나무엔 피꼬리 우는 소리가 들리고

嶺上青松鶴鳴聲(령상青松鶴鳴聲)

고개마루 푸른소나무에선 학의 울음소리 들리네

浮世相看俱醉夢(부세상관구취몽)

떠돌이 바라보니 세상사 모두다 꿈같은데

暮年何用有詩名(모년하용유시명)

내몸이 늙었는데 시인이란 불림이 무슨 소용 있으리요

家因靠水溪流近(가인교수계류근)

푸욱은 배산임수 시냇물 가까이구나

自慰江陵海浴成(자위강령해욕성)

품종다위, 강릉해수욕장에 간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네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31호 8면 초대행사 ‘只怪人精妄自尊’을 ‘只怪人情妄自尊’으로 ‘回復主權宣布布’를 ‘回復主權宣布布’로 바로 잡습니다.



柳鳳鉉  
前 抱川郡校 典校

## 초대 詩

## 사랑의 의미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한번 더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며 그 이의 인생을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조화의 연장선입니다. 내 조그만 머리에 그를 담아 아름다운 환상(幻象)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순일(純一)한 애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마음 속에 그 이를 생각하며 무구(無後)한 순연(純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때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대 행복이 배로 커지고 내 행복도 한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종훈  
미륵문화회 회원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8)

### ‘여덟 다리’와 ‘탁족놀이’

포천의 영평 팔경은 이미 소개한 바 있거니와 옛 포천현의 여덟 개의 다리, 즉 ‘포천팔다리’는 그리 유명한 명승은 아니었으나 내 고향 포천사람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왔다.

‘동다리’, ‘??다리’, ‘방아다리’, ‘계다리’, ‘공성다리’, ‘유성다리’, ‘반세다리’, ‘요물다리’, 등 여덟 개의 다리는 냇물을 건너 다니게 하는 편리한 점이 있었으나 다리 밑에서 여름 날 더위를 피하고 낮잠도 즐기며 다리 그늘에 의지하고 사는 버드나무, 미루나무, 소나무 등의 뿌리에서 물고기기가 살기도 하고 수초가 있는 물고기 아파트로도 좋은 환경이었다.

여름날 글밭 학동들을 가르치시는 훈장님이나 점장님 그리고 마을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탁족놀이’(여름날 더위를 식히려 냇물에 발을 담그며 시도 짓고 읊는 놀이)를 즐겼던 곳도 다리 근처였다. 대개 글밭에서는 한달에 보름과 그름을 택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바를 시험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여름에는 탁족놀이 마당에서 행해졌으리라. 또 책 한 권을 다 배우고 냇을 경우, 문리(文理)를 깨우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경우도 학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책걸이’, ‘책시습(冊習)’이라고 하여 시험도 보고 축하 모임도 가졌다. ‘천자문’, ‘동몽선습’ 등의 책은 지금

의 유치원에 해당되는 예비과정이고 ‘소학’을 완전히 익혀야 요즈음 초등학교 과정에 입학하여 첫 관문을 통과한 ‘한글 깨치기’와 ‘기본학습태도’를 익혔다고 볼 수 있는데 월곡을 비롯한 명현들이 평생 ‘소학’을 머리맡에 두고 애독했을 정도의 명교사였다. 그리고 명심보감도 교과서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몰락한 양반의 평생소원이 지식남이 소학이나 명심보감을 사랑해서 낭랑히 읽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얘기도 있다.

내 고향 포천의 ‘탁족놀이’나 여름 ‘천렵(여름물고기 잡기)’ 장소로는 계다리나 북장굴이 으

땀이었고 다른 다리도 평소 애용되던 서민의 여름 안식처였다. 청성산과 수원산 그리고 찢뒤에서 흐르는 냇물이 모여 한내천으로 흐르는데 이 개천을 ‘육계천’이라고도 하고 ‘유성기 개울’이라고도 하였다.

미륵불에서 한내천으로 내려 흐르던 ‘유성기 개울’은 유난히도 맑고 물흐는 소리가 아름다워 내고향 포천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반세다리’나 ‘공성다리’ 밑은 물의 양이 많고 세차서 어린이들은 무서워 놀지 못하였는데, 여름 큰물이 간 뒤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과 탁족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